

'인구 감소 지역' 자원 활용 맞춤형 산업 육성

전북테크노파크, 순창군·김제시·장수군·남원시 지역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참여 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 산업 육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026년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김제시, 장수군, 남원시 등 전북 내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 기간 동안 지역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해당 시군이 협력하는 부처 협업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연구

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인구 소멸 지역 내 산업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내용은 제품 개발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시찰·분석·인증, 기술 지도, 공정 개선, 패키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순창·김제·장수·남원 지역 내 분사나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공고 내용과 지원 요건은 전북테크노파크 및 SMTEC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은 인구 소멸 지역 기업들이 겪는 기술적·경영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2025 경영평가 및 2026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주삼천신협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삼천신협' 종합대상 수상

전북신협 2025 경영평가·2026 사업설명회 개최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2025 경영평가 및 2026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주삼천신협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신협의 한 해 경영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 지역 신협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 실무책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조합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시상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허동욱 전북지역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춘제 전북지역협의회장의 환영사, 고영철 중앙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전주삼천신협이 전북 지역 종합대상을 차지

했다. 군별 대상은 이리신협, 서신신협, 전주호성신협, 무주반딧불신협, 대산신협이 각각 수상했으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포함해 총 33개 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우수 임직원 21명이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전국 단위 경영평가에서도 전북 지역 조합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전주삼천신협이 2군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무주안성신협(5군 1위), 무주반딧불신협(6군 1위), 전주호성신협(5군 3위), 예수병원신협(직장조합 1위 특별상)이 수상했다.

허동욱 본부장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이룬 전북신협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2026년에도 70개 조합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실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에너지용 고성능 활성탄소 공급망 자립화 본격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간담회 갖고 협력 방안 논의

에너지 인프라 핵심 소재인 고성능 활성탄소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자립화에 본격 나섰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20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에너지용 고성능 활성탄소 공급망 자립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료 공급 기업과 소재 기업, 수요 기업 등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관계자 및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고성능 활성탄소 소재 공급망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설비 확대에 따라 고성능 활성탄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재 대부분을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시급

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국들이 핵심 원료인 아자각을 선점하고 있는 데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작황 변동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원료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원료 확보의 어려움과 공급망 리스크, 국내 양산체계 구축 필요성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며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와 함께 참여 기업들은 고성능 활성탄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원료 확보부터 소재 개발, 완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성능 활성탄소 소재 개발 및 양산 기술 확보,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재자원화 및 대체 소재 개발, 정부 정책과제 및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이다.

기업 측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산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향후 차세대 배터리 분야까지 기술 확보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 여성 보육 인력을 대상으로 돌봄 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중장년 여성 보육 인력, 돌봄 분야 재취업 돕는다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 여성 보육 인력을 대상으로 돌봄 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돌봄 경력 전환 재도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생애 경력 설계를 시작으로 취업 역량 강화와 직무 이해, 현장 실무 교육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사지원서 작성, 어르신 정서 및 건강 이해, 면접 시뮬레이션, 사회복지 전산망 '케어포' 활용 교육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전주·원주 지역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열려 교육 수료자와 기업 간 현장 채용 연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이 수료자를 채용할 경우 연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도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농업가뭄 대응 인공지능 도입...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가뭄에 선제 대응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공지능 기반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해 저수지와 하천이 빠르게 마르는 '돌발 가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지표수 중심으로 가뭄에 대응해 왔지만, 단기간에 수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이 늘면서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지하수를 활용한 수자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규 지하수 개발은 적잖은 탐사와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다.

공사는 전국 4면 개 농업용 공공관정에서 수집한 이용량과 수위 데이

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지하수 수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하수 부족량과 가용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뭄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 2차 연도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와 현장 실증을 통해 전국 확대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기존 관정 성능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전국 511개 농어촌용수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 관정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시설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0개 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매년 25개 지구씩 확대한다.

또한 2038년까지 전국 21개 시설농업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사업을 추진해 물 부족 지역에 지하수를 보충하는 등 중장기 대응책도 마련한다.

/오상근 기자

'청년농업인 농산물' 휴게소 식재료 도입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청년농업인 판로 확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식재료에 지역 농산물을 본격 도입한다.

전북본부는 김제시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쌀과 콩을 매입해 오는 3월 말부터 휴게소 식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업인을 의미하며, 정부가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 계층이다.

이에 따라 익산미륵사지휴게소(천안방향)에서는 김제산 쌀과 콩을 활용한 신규 메뉴가 선보인다. '청년농부 쌀밥'을 비롯해 콩국수, 콩비지찌개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3월 말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휴게소 메뉴판에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본부는 향후 고구마와 감자 등 판로 확보가 필요한 품목으로 직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농가와 휴게소를 늘려 청년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은 이용객이 찾는 유통 거점"이라며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